



신뢰 측정에 대한 OECD 지침



신뢰 측정에 대한 OECD 지침

본 지침은 OECD 총장의 책임 하에 발표되었습니다. 본 지침에 포함된 의견이나 논의는 OECD 회원국 또는 EU 회원국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지침 및 본 지침에 포함된 데이터와 지도는 특정 영역에 대한 주권, 국경선 확정, 영역, 도시, 구역의 명칭에 대한 OECD의 공식적인 입장과 무관합니다.

본 지침을 인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인용하십시오:

OECD(2017),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Trust*,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78219-en>

ISBN 978-92-64-27820-2 (출판물)
ISBN 978-92-64-27821-9 (PDF)
ISBN 978-92-64-27822-6 (epub)

이스라엘 통계 자료는 이스라엘 통계 당국이 제공하였습니다. OECD는 해당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골란 고원, 동예루살렘, 웨스트 뱅크 이스라엘 정착지가 가지는 국제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OECD 출판본에 대한 정정표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www.oecd.org/about/publishing/corrigenda.htm

© OECD2017

OECD 콘텐츠는 개인적인 용도로 복사, 다운로드, 출력할 수 있으며, OECD 출판물,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그 출처와 저작권을 밝힌 후 개인적인 용도의 문서, 프레젠테이션, 블로그, 웹사이트, 교육 자료에 발췌해서 수록할 수 있습니다. 공공 또는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rights@oecd.org로 사용 신청을 하십시오. 본 지침을 공공 또는 상업적 용도로 복사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정산센터(CCC)(info@copyright.com) 또는 프랑스저작권정산센터(CFC)(contact@cfcopies.com)으로 신청하십시오.

서문

행복을 이해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와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지난 2009년 스티글리츠-센-피투시 (Stiglitz-Sen Fitoussi) 위원회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성과 지표로 GDP를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이래로 통계 분야에서는 관련 지표를 개발, 측정하고 사람의 행복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해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아직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고 있는 주제들이 남아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신뢰이다. 2011년에 시작된 OECD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구상(Better Life Initiative) 하에서 작성된 본 OECD 신뢰 측정에 대한 지침은 행복에 관한 통계를 개선하고 확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신뢰의 문제, 또는 불신의 문제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언론에 수 없이 오르내린 주제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대중의 공공 제도에 대한 신뢰는 크게 하락했고 여전히 금융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를 표시하며, 공적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사회만이 모든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타인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는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며, 달리 말해 번영하는 사회란 곳 그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여러 정책 구상을 통해 보다 나은 신뢰 측정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업, 형평, 신뢰에 관한 2013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OECD 회원국 정부에 공적 제도 신뢰 회복 방안에 관한 지침, 방법론, 신뢰 측정 방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OECD 신뢰 전략이 채택된 바 있다. 또한 2015년 UN 회원국들에 의해 채택된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SDGs) 중 목표 16은 신뢰와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발전,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회 건설,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UN 통계 위원회는 SDG 목표 16에 규정된 대상 지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거버넌스 통계에 관한 핸드북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 그룹(프라리아(Praia) 그룹)을 구성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신뢰 측정은 그 역사가 길지 않으며, 특히 공식적 통계로 수집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이다. 공식적으로 통계가 집계되는 경우에도 국제적인 비교 연구를 하기에는 그 주거나 방법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본 지침의 목표는 이 간극을 메우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본 지침의 주요 목적은 자체적인 방식으로 신뢰를 측정하는 데이터 생산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본 지침을 통해 UN 프라리아 그룹에 대해 직접적인 의견 제시를 할 것이다. 또한 신뢰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가용한 최선의 방안들을 종합할 것이다. 이런 지식들은 신뢰 측정에 관한 실증적 증거가 쌓이면서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특히 개인 간 신뢰 측정에 있어서는, 제안된 조사 질문지가 충분히 유효한 데이터를 산출한다는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공식 조사에 포함 시켜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본 지침이 신뢰 데이터의 품질과 가용성을 향상 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OECD 수석 통계학자
OECD 통계국장
마틴 듀홍(Marine Durand)

감사의 말씀

본 보고서는 OECD 총장의 책임 하에 출판되었다. 본 보고서의 견해와 논의는 OECD 또는 그 회원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다.

본 지침은 OECD 통계 위원회와 공공 거버넌스 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위원회 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본 보고서는 OECD 통계국의 Conal Smith와 Lala Fleicher에 의해 작성되었다. OECD 회원국 국가 통계 기관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문 그룹(Adrian Franco, INEGI, 멕시코; Sophie Pontieux, INSEE, 프랑스; Dawn Snape, Veronique Siegler, ONS, 영국; Fiona Carnes, Joanne Baker, ABS, 오스트레일리아), 관련 분야 연구자 및 정책 결정자(김순희 교수, 김동영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Jacob S. Hacker 교수, 예일 대학교; Yann Algan 교수, 파리정치대학(Paris Institute of Political Studies); Monica Ferrin 박사, 토리노 대학교; Jacob Saeger, 영국 내각전략실; Marc Hetherington 교수, 밴더빌트 대학교; Eugene Kandel 교수, 예루살렘 헤브루 대학교, 전 이스라엘 국가경제협의회 의장)들이 보고서 작성에 소중한 의견과 조언을 제공해주셨다. 그 밖에도 Martine Durand, Marco Mira d'Ercole, Carrie Exton, Fabrice Murtin(OECD 통계국), Rolf Alter, Zsuzsanna Lonti, Paloma Baena Olabe, Santiago Gonzalez(OECD 공공거버넌스국)도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의견을 제시해주셨다. 본 보고서의 최종 편집은 Patrick Hamm, Anne-Lise Faron, Virginie Elgrably가 수고해주셨다.

목차

개요	11
개관 및 권고	15
1. 개념 및 타당도	16
2. 신뢰 측정에 대한 방법론적 고려	17
3. 신뢰 측정	19
4. 신뢰 데이터 산출 및 분석	22
5. 향후 과제	23
1 장 서론	25
1.1 서론	26
1.2 동기	26
1.3 신뢰 측정 지침	29
1.4 결론	32
주	32
참고 문헌	32
2 장 개념 및 타당도	35
2.1 서론	36
2.2. 신뢰 측정의 개념적 기본틀	36
2.3. 신뢰 측정 방식	43
2.4. 신뢰 측정결과의 통계적 품질	47
2.5. 결론	80
주	81
참고문헌	82
3 장 방법론적 고찰	83
3.1 서론	84
3.2 측정상의 오류	84
3.3. 질문의 표현	85
3.4 응답 형식	93
3.5 조사의 맥락	97
3.6 조사 방식	100
3.7 응답 양식과 문화적 맥락	104
3.8 결론	107
주	109
참고문헌	109
4장 신뢰 측정	110

4.1 서론	111
4.2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신뢰 측정 계획	112
4.3 설문과 표본의 설계	119
4.4. 설문 문항 설계	127
4.5. 설문의 실행	142
4.6. 결론	144
주	148
참고문헌	149
 5장 결과 및 신뢰 데이터 분석	150
5.1. 서론	151
5.2. 신뢰 데이터의 보고	151
5.3. 신뢰 데이터의 해석	162
5.4. 신뢰 데이터의 분석	172
5.5. 결론	178
주	180
참고문헌	181
 부록 1 신뢰 측정 과정을 설명하는 예시	182
부록 2 질문 모듈	192
 표 차례	
표 2.1 여러 가지 신뢰 관계를 구분하는 기본틀	39
표 2.2 세계 가치관 조사에 나타난 신뢰 측정치의 차원수	41
표 2.3 OECD 신뢰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조사 자료와 주요 특징	55
표 2.4 정부에 대한 조사별 신뢰측정 결과의 상관관계	57
표 2.5 사법체계에 대한 조사별 신뢰측정 결과의 상관관계	58
표 2.6 유럽 사회 조사에서 조사 차수 별 일반화된 신뢰 측정결과의 상관관계	60
표 3.1 응답 편향과 휴리스틱 방식 요약	85
표 3.2 성별, 연령군별 개인 간 신뢰 질문 응답 비교	88
표 3.3 성별, 기관에 대한 신뢰 vs. 기관의 국익 활동에 대한 신뢰 비교	89
표 3.4 기관에 대한 믿음 vs. 기관에 대한 신뢰 비교	91
표 4.1 OECD 신뢰 프레임워크	138
표 5.1 신뢰 데이터의 통계발표 시 제안 구조	152
표 5.2 특정 해의 캐나다 인구군별 개인 간 신뢰도	161
표 5.3 개인 간 신뢰 측정결과의 격차	163
표 5.4 경찰에 대한 신뢰 측정결과의 격차	164
표 5.5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 측정결과의 격차	165
표 5.6 정부에 대한 신뢰 측정결과의 격차	166

그림 차례	
그림 2.1 일반화된 신뢰 측정법에 관한 조사 별 상관관계	59
그림 2.2 유럽 삶의 질 조사에서 조사 차수 별 일반화된 신뢰 측정결과의 상관관계	60
그림 2.3 유럽 사회 조사의 항목별 무응답 비율, 2002-2014	61
그림 2.4 갤럽 세계 설문조사의 항목별 무응답 비율, 2006-2016	63
그림 2.5 유럽 국가들의 일반화된 신뢰와 1인당 GDP, 2002-2014	70
그림 2.6 일반화된 신뢰와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 2002-2014	71
그림 2.7 일반화된 신뢰와 유럽 국가들의 기대수명, 2002-2014	71
그림 2.8 일반화된 신뢰와 유럽 국가들의 삶의 만족도, 2002-2014	72
그림 2.9 OECD 국가에서 제도적 신뢰와 부패 인식도, 2002-2014	73
그림 2.10 OECD 국가에서 제도적 신뢰와 1인당 GDP, 2006-2015	74
그림 2.11 OECD 국가에서 제도적 신뢰와 실업률, 2006-2015	75
그림 2.12 OECD 국가에서 제도적 신뢰와 살인사건 발생률, 2006-2015	76
그림 2.13 OECD 국가에서 제도적 신뢰와 삶의 만족도, 2006-2015	77
그림 4.1 계획 절차: 이용자의 필요부터 설문조사 문항까지	113
그림 4.2 미국의 일반화된 신뢰, 1972-2014	122
그림 4.3 행복 통계시스템: 개념 요약	128
그림 5.1 뉴질랜드 공공서비스에 대한 남녀별 신뢰도	154
그림 5.2 스웨덴의 개인 간 신뢰도, 1996-2015	155
그림 5.3 뉴질랜드 연령군별 개인 간 신뢰도	156
그림 5.4 유럽 각국의 개인 간 신뢰도, 2013	157
그림 5.5 유럽 각국의 공공기관 신뢰도, 2013	158
그림 5.6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 1958-2015	159
그림 5.7 OECD 국가들의 2014년 정부 신뢰도와 2007년 이후 변화	159
그림 5.8 캐나다인의 출생지 기준 개인 간 신뢰도, 2013년	160

개요

본 신뢰 측정에 대한 OECD 지침은 데이터 생산자들의 신뢰 측정 자료 수집 및 보고와 데이터 사용자들의 다양한 신뢰 측정 접근법과 분석을 위한 함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되었다. 본 지침은 신뢰 측정 우수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국가 간 비교를 위한 핵심 측정 기법을 제안하고, 각국의 통계청(NSO)이 정기 가구 조사에 신뢰 측정을 포함시키도록 권장한다.

본 지침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개발되었다:

- 각국의 통계청 및 그 밖의 데이터 생산자에게 질문지 설계 우수 사례를 근거로 한 측정 지침을 제공하여 국가 간 신뢰 측정 비교 연구를 용이하게 한다.
- 신뢰 측정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알려진 사실을 정리하고, 가능한 경우 기존 조사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증거 기반을 확대한다.
- 국가 통계청과 연구자들이 신뢰 측정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증거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한다.
- 장기적으로 공식 조사에 신뢰 측정을 포함시키는 국가를 늘려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핵심 지표 모니터링에 기여한다.

신뢰란 무엇인가?

본 지침은 타인에 대한 신뢰(**개인 간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제도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구분한다.

- 본 지침은 개인 간 신뢰를 일반 신뢰와 제한된 신뢰로 구분한다. 일반 신뢰란 응답자가 모르는 사람에 대한 신뢰 또는 신뢰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신뢰를 의미한다. 제한된 신뢰는 가족, 친구, 이웃처럼 응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에 초점을 맞춘다.
- 제도적 신뢰는 정치, 법률, 질서, 비정부기관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제도에 대한 신뢰라는 보다 좁은 의미의 개념이다.

왜 이 지침을 개발했는가?

UN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같은 국제 계획은 보다 나은 신뢰 측정의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경제 성과 및 사회적 진보 측정 위원회(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2009 보고서부터 OECD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구상(Better Life Initiative)까지 주요 경제, 사회, 환경 성과 측정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몇몇 OECD 국가에서는 이미 가구 조사에 신뢰 측정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신뢰를 공식 통계 조사에 반영하고 있다. 이는 각국 정책 결정자들이 자국민들의 행복, 사회적 자본, 사회적 응집성에 대한 보다 나은 정보를 끊임없이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정기적으로 삶의 성과 적시성이 높은 신뢰 측정이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비교 연구가 가능한 데이터는

대부분 비공식적인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것들이다.

본 지침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본 지침은 단일 측정 방법을 규범적으로 제시하는 대신 현재 알려진 신뢰 측정에 관한 정보를 취합해서 안내하고자 한다. 사용자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본 지침의 각 장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2장에서는 개념, 관련성, 타당도 문제에 대해 다룬다. 2장은 다양한 측정법을 통해 어떤 개념을 측정하게 되는지, 각 측정법은 어느 정도까지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는 신뢰 데이터 사용자와 신뢰 측정 실시 여부, 측정 대상 중점 개념을 고민하는 신뢰 데이터 생산자에게 특히 유용할 것이다.
- 3장은 질문 설계와 관련된 방법론적 문제에 대해 다룬다. 측정 오류, 질문 문구, 응답 형식, 조사 맥락, 조사 방식, 응답 경향, 문화적 맥락 등이 3장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들이다. 3장은 질문 설계에 관심 있는 데이터 생산자와 신뢰 측정에 나타나는 다양한 편향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전문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 4장은 신뢰 측정의 우수 사례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4장은 기획, 조사, 표본 설계, 질문 설계, 시행으로 이어지는 연구 단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장들과 비교하여 4장은 상대적으로 규범적이며 주로 조사 설계를 직접 담당하는 데이터 생산자를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 5장은 신뢰 측정의 결과 및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5장의 주요 목표는 신뢰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 통계 작성과 해석에 대해 다루는 것이다. 이를테면 신뢰 수준이 *크게* 변한 것인지 *작게* 변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같은 문제가 여기에 포함된다. 그 밖에도 보다 정교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뢰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도 다룬다.
- 부록 A에서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공식, 비공식 신뢰 측정 질문을 취합하여 수록했다. 부록 A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측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부록 B에는 데이터 생산자가 자체적인 질문을 개발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5가지 기본형 질문 모듈을 수록했다. 첫 번째 핵심 질문 모듈은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측정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측정’에는 조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국가 간 비교 연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모듈의 나머지 4가지 질문들은 가장 중요한 개인 간 신뢰, 제도적 신뢰에 관한 기본 정보를 담고 있다. 다른 4가지 모듈들은 응답자의 신뢰감에 대한 평가, 타인의 행동에 대한 기대, 과거의 경험, 신뢰하는 행동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적 기술 등에 초점을 맞춘 신뢰 정보 측정 접근법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과제

신뢰에 대한 증거 기반이 확장되면 본 지침에 수록된 정보를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따라서 본 지침을 ‘불변의 기준’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본 지침 발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증거 기반이 어느 정도 확장되었는지 검토하고, 공식 통계 체계에 포함된 신뢰 측정법의 표준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과제를 파악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개관 및 권고

개관 및 권고에서는 본 지침의 각 장 별로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주요 요점과 권고를 요약 정리하고자 한다. 신뢰 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가장 세부적이고 규범적인 권고를 담은 장이 4장(신뢰 측정)이기 때문에 개관 및 권고에서도 4장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장 세부적인 내용을 담게 될 것이다.

1. 개념 및 타당도

신뢰 측정의 실효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개인간 신뢰(특히 일반 신뢰) 측정은 사회의 복지, 사회 자본을 측정하고, 기타 사회적, 경제적 결과의 동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일반 신뢰의 동인과 결과에 대해 다루고 있는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헌들과 영국이나 이스라엘에서 진행되는 행복 측정 계획에서부터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같은 국제적인 움직임까지 다양한 국가 또는 국제 단위 구상들에서도 잘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각종 측정 계획에서부터 다양한 학술 문헌까지 많은 분야에서 제도적 신뢰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제도적 신뢰에 대한 이해는 복지 수준 측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효과성과 민주주의 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신뢰 측정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일반 신뢰 측정의 타당도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갖춰져 있지만, 제한적인 신뢰 측정의 타당도는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않고 있다. 일반 신뢰 측정은 안면 타당도, 구성 타당도, 수렴 타당도 측면에서 잘 작동하는 편이며 이는 국가 간 비교나 개인 응답 수준 모두에서 마찬가지이다. 개인 수준의 일반 신뢰 측정법 중 일부는 그 시험-재시험 신뢰도가 의심받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 단위의 측정 결과는 서로 상이한 데이터 소스와 측정 기간을 가진 조사 사이에도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다른 모든 추상적인 개념과 마찬가지로 일반 신뢰를 측정하는 과정에서도 응답자의 주어진 질문에 대한 해석, 주관적 판단 등과 같은 문제들이 지적되지만,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일반 신뢰에 대한 질문은 유효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남아 있는 측정 관련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통찰들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전통적인 공식 통계들보다도 오히려 일반 신뢰 측정의 타당도에 대한 이해가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반 신뢰에 대한 측정은 목적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식 조사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도적 신뢰에 대한 측정은 상황이 개인 간 신뢰에 대한 측정과는 다르다. 제도적 신뢰 측정도 구성 타당도 측면에서는 잘 작동하지만 안면 타당도와 수렴 타당도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때로는 편향성이 개입될 수 있으며, 타당도의 일부 핵심 요소에 대해서는 아예 평가 결과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도적 신뢰는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경우에도 아직 공식 통계 조사에 포함시켜도 된다고 단언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도적 신뢰에 대한 측정이 공식 통계 조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제도적 신뢰에 대한 측정을 실험적 측정으로 인식하고, 그런 인식이 명확하게 전제된 상태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국가 통계청의 경우 이런 인식이 더욱 중요하다.

달리 보면 이는 학계와 각국의 통계청이 제도적 신뢰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제도적 신뢰 측정의 정확도에 관한 방법론적 의문들 중 상당수

는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국가 통계청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표본 규모와 응답률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2. 신뢰 측정에 대한 방법론적 고려

이 절에서는 신뢰 측정 질문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편향과 측정 오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신뢰 측정은 (교육 수준이나 기대 수명과 같은) 객관적인 측정보다 반응 편향에 보다 민감하기는 하지만, 이런 편향은 국가 통계청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다른 자가 보고 측정 방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런 편향의 존재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최선의 질문 및 조사 설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측정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이 신뢰에 대한 자료 수집 자체를 배제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질문을 어떻게 설계한다고 해도 집단/국가 사이의 의미 있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표준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질문 문구

질문 문구에 대한 연구(특히 분할 표본 실험 연구)를 보면 질문 문구는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 질문 문구에 신뢰 이외의 개념이 포함되는 것을 피해야 하며, 상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묘사해야 한다.
- 개인 간 신뢰의 경우, 독립적 문구 사용을 권장한다. 데이터 수집자는 “타인과 결과를 공유하지 말 것”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구는 민감한 사람들의 신뢰 수준을 과소평가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제도적 신뢰의 경우, 대상이 되는 제도나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 응답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 전체적으로 질문 문구는 응답자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해야 하며,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미묘한 뉘앙스가 들어간 문구는 피해야 한다.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지나치게 유사한 경우, 응답자들이 개념 구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예, 신뢰 vs 믿음).

응답 양식

응답 방식에 따라 반응 분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 신뢰 항목의 경우, 언어 척도 기준과 함께 0-10점 점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응답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전반적인 데이터 품질이 올라가며, 번역성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 긍정적 기준과 부정적 기준을 오가야 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응답 순서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즉 10-0과 0-10을 혼용하지 말고 0-10만 사용).
- 암묵적 동의 편향과 사회적 인식을 의식한 응답을 줄이고 가능한 응답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척도 기준에 절대적인 표현(즉 전적으로 그렇다/전혀 그렇지 않다)을 사용해야 한다.

조사 맥락

보다 넓은 범위의 조사 맥락 안에서 신뢰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문구와 응답 양식 표준화 측

면에서 서로 다른 조사 간에 질문 모듈 순서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신뢰 측정의 품질과 비교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

-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에 대해 복수의 질문을 할 경우 순서 효과가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신뢰 항목을 가능한 한 서로 떨어뜨려 놓거나 전환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 신뢰 항목 목록을 사용할 때는 질문군을 넓은 개념에서 좁은 개념으로 구성해야 한다. 즉 일반적인 신뢰에 관한 질문을 구체적인 신뢰에 관한 질문보다 먼저 배치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강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거나 타인 또는 제도와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을 묻는 질문 직후에 신뢰 질문을 배치해서는 안 된다.
- 질문지 설계자는 신뢰 질문 자체가 다음 항목에 미치는 영향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하며, 특히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 이어지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 연휴, 계절, 선거 등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 기간을 넓게, 최소한 여러 주에 걸쳐 잡아야 한다.

조사 방법

사람들은 신뢰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응답을 하거나 아예 응답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제도적 신뢰에 대한 측정에서 이런 문제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 면접자 조사보다 자기기입식 조사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응답을 하는 경향이 더 낮게 나타난다.
- 조사 방식을 불문하고 응답자의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줄이거나(예, 기밀성 보장), 조사 방식을 통제하면(예, 조사원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함) 민감성 관련 응답 편향을 줄일 수 있다.
- 대면 면접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질문지 밀봉, 비결부(非結付) 계산법(unmatched count technique) 등과 같은 기술적인 인터뷰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응답 성향 및 문화적 맥락

공통의 기준이나 실제 행동과 대비하여 각 문화 별 응답 성향을 외생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미 알려진 응답 성향이 있는 경우에도, 전체적인 데이터 품질에 반드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 데이터 생산자는 응답 성향 편향 가능성을 완화시키려면 사후 통계적 조정 기법에 의존하기 보다, 응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질문 항목을 단순하게 설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 데이터 품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사 설계(길이 및 진행 방식 포함) 과정 전반에서 응답자의 부담, 동기 유발, 피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응답 편향에 취약한 질문 양식은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찬성/반대, 또는 그 정도는 얼마지만 예/아니오 양식의 질문의 경우, 암묵적 동의 편향에 더 취약하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주제

제도적 신뢰와 개인 간 신뢰 모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특히 전자의 경우 아직 방법론적 검증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 첫째, 제도적 신뢰 질문 문구에 관한 실험적 검증을 통해, 어떤 제도에 어떤 구체적인 문제(예, 국익, 동일 집단의 이해 관계, 정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 규명해야 한다. 이런 검증은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둘째, 긍정적인 문구와 부정적인 문구를 혼합할 경우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이 쏠리는 경향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같은 척도로 부정적인 항목과 긍정적인 항목을 번갈아 측정할 경우 응답자들이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 셋째, 신뢰 질문에서 어떤 경우에 순서 효과가 나타나는지 아직 불확실하다. 어떤 종류의 질문 또는 맥락에서 순서 효과가 나타나는지 규명하여 조사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상 집단을 좁힌 방법론적 연구가 필요하다. 질문 사이에 전환 문구를 삽입하면 순서 효과를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구체적인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문구를 사용한 실험이 필요하다.
- 넷째, 각 문화 별로, 현실 또는 실험 상황에서 나타나는 신뢰 행동과 같은 외적 준거에 대비되어 나타나는 응답 성향 타당도 연구를 통해 문화 간 신뢰 비교 연구의 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신뢰 측정

이 절에서는 신뢰 측정의 모범 사례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 절에서는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측정을 위한 최선의 접근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다룰 것이다. 표본 설계, 조사 설계, 데이터 처리, 질문지 설계 문제 등이 논의 대상이다.

신뢰 측정 계획

- 측정 대상을 결정할 때는 먼저 사용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i) 정책 과제가 무엇인가?, ii) 제안된 신뢰 콘텐츠가 정책 과제에 적합한가?, iii) 제안된 측정 방법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또는 집단 간의 비교가 가능한가?, iv) 사용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 집단은 누구인가?, v) 사용자의 의도가 집단 간의 결과 비교인가, 각 신뢰 항목 간의 관계 이해인가?, vi) 사용자의 주된 관심사가 일반적 신뢰인가, 제한적 신뢰인가, 제도적 신뢰인가?, vii)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얼마나 자주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가?, viii) 어떤 국내적 비교가 필요한가?(예, 지리적 단위)
- 신뢰 자체에 대한 최선의 측정 방법 뿐만 아니라 신뢰 측정과 함께 측정하여 분석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i) 연령, ii) 성별, iii) 혼인 상태, iv) 가족 유형, v) 자녀 유무, vi) 가족 규모, vii) 지역 정보, viii) 이민 여부/출생 국가/이민 시기 등이 포함된다.
- 상기 인구 통계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정보를 함께 수집할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i)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ii) 거주 지역(도시/시골), iii) 소득, iv) 자산, v) 고용 상태, vi) 교육 수준, vii) 건강 상태, viii) 사회 관계, ix) 시민 참여 및 거버넌스, x) 개인 안전 및 사회적 억압(victimization) 여부, xi) 주관적 행복도, xii) 인종, xiii) 종교

조사 표본 설계

표본화

- 신뢰 질문에 대한 응답은 그 성격 상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측정 단위도 개인이어야 한다. 이는 개인 또는 가족에 대한 대표 표본을 구성할 때 모든 개인을 개별적으로 인터뷰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설계해야 함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신뢰 측정은 전체 성인 집단(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데이터 수집 주기 및 조사 기간

- 신뢰 측정 데이터는 사용 범위가 넓고, 사용 목적과 측정 유형에 따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신뢰 측정의 주기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행복도를 조사하고 사회적 자본의 경향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일 경우, 조사 주기를 최소 1년으로 해야 한다.

조사 기간

- 신뢰 측정은 조사 기간(즉, 정보를 수집하는 기간)이 중요하다. 연중 조사 시점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교육 수준 또는 혼인 상태에 대한 조사와는 달리, 신뢰 측정의 경우 정확한 조사 시점이 측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가장 이상적인 것은 휴일을 포함한 모든 요일을 포함하여 1년간 조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1년 전체에 걸쳐 가장 정확한 신뢰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다. 연간 조사가 어려울 경우, 모든 요일을 포함하여 조사 기간을 최대한 넓고 균등하게 분포시켜야 한다.

표본 규모

- 어떤 조사에서도 표본 규모는 클수록 좋다. 표본 규모가 크면 표준추정오차가 줄어들고, 조사가 정확해지며, 인구 집단 간의 비교 분석도 보다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신뢰 측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변화도 다양한 분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표본 규모가 특히 중요하다.

조사 방식

- 데이터 품질 측면에서는 쇼카드를 사용한 전자 자체 인터뷰/전자 개인 인터뷰(CASI/CAPI)이 신뢰 측정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조사자가 있으면 응답자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쇼 카드는 데이터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 CASI 방식을 사용하면 데이터의 기밀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민감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를 꺼리는 경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
- 다른 조사 방식을 사용할 경우, 조사 방식이 미치는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 통계청 단위에서 조사 방식이 핵심 신뢰 측정에 대한 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며, 그 결과를 CATI 또는 CASI 조사 결과와 함께 발표해야 한다.

조사 수단

- 신뢰, 거버넌스, 사회적 자본이 주요 관심 대상인 경우, 신뢰에 초점을 맞춘 특수 모듈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특히 신뢰 데이터의 용도가 사회적 자본 측정 또는 거버넌스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 특수 모듈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 신뢰 측정은 다양한 맥락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조사 안에 제한적인 범위의 신뢰 질문을 포함시킬 수 있다.

질문 배치

- 중요한 신뢰 질문은 조사의 핵심 부분에 배치해야 한다. 모든 조사에서 첫 부분에 신뢰 질문을 배치할 수는 없겠지만, 신뢰 질문을 조사 질문지에서 정해진 위치에 고정적으로 배치하면 맥락 효과로 인한 편향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이렇게 해도 편향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인구 집단 간, 또는 시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 신뢰와 관련하여 응답자에게 점화 효과를 일으키거나, 신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한 실증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질문 직후에 신뢰 질문을 배치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관계, 사회적 억압, 정치적 신념, 위험, 불안 등에 관한 질문이 여기에 해당된다. 신뢰 질문 앞에 두기에 가장 좋은 질문은 인구통계학적 질문이다.
- 응답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전환 질문을 사용해야 한다. 단, 전환 질문 그 자체가 맥락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응답자의 사생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경우, 응답자가 이어지는 개인 간 신뢰에 대한 질문에 답할 때 낮은 사람보다는 지인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수 있다. 효과적인 전환 질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향후 과제 중 하나이다.
- 질문 주제를 구분하기 위해 도입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 질문 또는 주제가 나오기 전에 잘 구성된 문구를 배치할 경우 신뢰 질문 또는 민감한 질문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도입 문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 시험 또는 실험 분석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질문 순서

- 질문 모듈 순서의 경우, 일반적인 주제에서 세부적인 주제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한다. 개인 간 신뢰의 경우, 일반 신뢰에 대한 질문을 제한적 신뢰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 앞에 배치해야 한다. 또한 개인 간 신뢰에 대한 질문을 제도적 신뢰에 대한 질문보다 앞에 두어야 한다. 후자가 보다 구체적이고 점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 제도적 신뢰에 관한 질문은 보다 잘 알려진 제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 순서로 구성해야 한다. 서로 다른 제도 간의 신뢰 수준 비교가 중요한 경우, 질문 배치 순서를 응답자

마다 무작위로 구성해야 한다. 전체 표본에 대한 무작위화가 어려운 경우, 시범 시험의 질문 순서를 무작위로 구성하여 신뢰 측정에서 나타나는 편향의 크기를 파악해야 한다.

번역

- 1차 번역은 도착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출발 언어에 능숙한 독립된 2명 이상의 번역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번역자는 연구 목표를 파악하고, 질문지의 배경, 출처, 기술적 세부 사항, 대상 모집단의 특성을 숙지해야 한다. 다른 모든 조사 설계와 마찬가지로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지 면담과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

질문지 설계

- 본 지침은 5가지 신뢰 측정 기본형 질문 모듈을 제공한다. 모듈 A는 국가 간 비교의 기본틀을 제공하는 개인 간의 일반 신뢰 측정을 위한 단일 기본 측정 질문들이 포함된 핵심 측정(core measures)으로 구성된다.
- 모듈 A에는 타당도와 정책 관련도가 가장 잘 검증되었으며, 국가 간 비교를 위한 통일성을 기하는데 가장 적합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지침에 포함된 다른 질문 모듈과는 달리 핵심 모듈은 별 다른 수정 없이 모듈 전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모듈 B에서 E는 신뢰 측정을 위한 서로 다른 접근법이 적용된 모듈이다. 이 모듈들은 모듈 A처럼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질문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국가 통계 기관이 출발점으로 삼아 활용할 수 있는 모듈이다.

조사 시행

- 어떤 조사이건 응답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면접자 훈련이 중요하다. 신뢰 질문에 대한 응답 태도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면접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질문의 개념뿐만 아니라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연구 결과 신뢰 측정 질문은 응답자가 답변하기에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 간 신뢰 측정의 항목 별 미응답률은 혼인, 교육, 직업에 대한 질문과 비슷한 수준이며, 가계 소득 질문에 대한 미응답률보다 크게 낮게 나타난다. 제도적 신뢰 측정 항목에 대한 미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여전히 가계 소득 질문에 대한 미응답률보다는 낮다. 이는 전체적으로 응답자가 신뢰 질문에 대해 답하는데 별 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번호 혼동, 중복 기록, 기록 누락, 불완전한 응답, 범위를 벗어난 응답, 건너뛰기 패턴 미준수 같은 명백한 오류 등이 통상적인 데이터 클리닝 절차에 포함된다. 이 중에서 신뢰 측정과 관련하여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같은 척도를 가진 여러 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모듈이 사용된 경우, 데이터 클리닝 절차에 반응 성향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신뢰 데이터 산출 및 분석

신뢰 데이터 산출 및 분석은 그 자체로 복잡한 과정이며, 결과를 근거로 간단한 몇 가지 권고를 도출하기가 어렵다. 이 절에서는 신뢰 데이터 측정 결과에 대한 일반적인 조언과 결과 해

석 및 분석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신뢰 데이터 보고

신뢰 데이터를 보고해야 하는 분석가는 의사소통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대상 청중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진 신뢰 데이터 산출 방법을 몇 가지 안내하고자 한다.

- 각 카테고리 별 빈도, 정해진 기준치를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비율, 집중경향값(즉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등을 사용해서 신뢰 수준을 표현할 수 있다.
- 기준치를 임의적으로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예, 높음, 낮음), 평균 수준과 함께 표준 편차와 같은 데이터 분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시계열 평균이나 원하는 구간 별 평균 값 변화를 계산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 시간의 흐름, 정해진 기준과의 차이, 특정 응답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 차이(절대값 또는 비율)를 통해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
- 집단 평균과 함께 표본 규모와 표준 오차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신뢰 데이터 해석

신뢰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실제 조건에서 관측된 결과를 어디까지가 작은 차이이고 어디까지가 큰 차이인지 결정하고, 인위성과 오류가 관측된 결과 차이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지침은 기존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차이의 정도(대상 집단 간, 국가 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차이)를 기록하기 위한 기초적인 기법들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빈틈이 많이 남아 있으며, 보다 높은 빈도로 산출되는 고품질의 데이터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신뢰 데이터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관측 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관측 내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파악하고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응답 척도에 따른 한계
- 역인과관계
- 문화가 신뢰 측정에 미치는 영향

신뢰 데이터 분석

신뢰 데이터를 의미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과 추론이 가능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표준 인구통계학 및 통제 변수를 포함한 관련 공변량을 같은 조사에서 함께 수집해야 한다. 분석 단위의 선택(즉 개인 또는 국가 수준의 변수 측정)도 중요하다. 또한 지역 사회의 특성도 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신뢰 수준의 총압이 개인 수준의 행복도 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뢰 데이터를 다룰 때는 자주 발생하는 계량경제학 문제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변수 누락 편향, 과다식별, 역인과성, 동일방법편의(shared method variance)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5. 향후 과제

본 지침은 신뢰 측정에 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거나 공식적인 국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공적 통계를 위해서 공식적인 통계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신뢰 측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각국의 국가 통계 기관들이 신뢰 측정을 위해 필요한 잘 정립된 업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본 지침은 따라서 공식 조사에서는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비공식 조사에서는 보다 널리 이뤄지고 있지만 일관성이 부족한 신뢰 측정의 현 실태와, 앞으로 수립될 공식적인 기준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지침을 통해 국제적인 비교 연구가 가능한 질문들을 조사에 포함시키는 등 보다 체계적인 신뢰 측정이 이뤄지도록 각국의 통계 기관들에게 촉구함으로써, 향후 진행될 신뢰 측정 국제 공식 기준 개발과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